

수리산 산신제

마을 개관

수리산은 군포시 수리동에 있는 산인데, 실제로는 군포시, 안양시, 화성군의 경계에 있는 높이 489m의 산으로 태을봉, 슬기봉, 관모봉, 수암봉, 거룡봉 등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군포시 방향의 수리산 아래에 '산밭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산본동이 있다. 이곳은 원래 도장골, 둔전골, 궁안골, 광정골, 곡란(谷蘭, 일명 골안)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시행으로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인구 5만여 명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현재는 늘어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산본 1동과 산본 2동으로 分洞되어 있다.

청주 한씨, 순흥 안씨, 전주 이씨가 각각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이들 마을은 그동안 산축회(山祝會)라는 계(契)를 조직하여 수리산 산신제를 주관해



왔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 이후 과거와 같은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종래 자연마을 출신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산본리 주민애향회' 또는 '수리산 산신제 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를 결성하고 수리산 산신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산신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제시기에 잠시 중단되었을 뿐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제의에 참가하는 인원은 104명 정도

로서 군포 일대의 민속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보존위원회'에는 100여 가족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기존회원 중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회원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회원들은 '보존위원회'의 활동에 다소 소극적인 편이다.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먼저 1차 조사는 2002년 7월 11일 산본동에 있는 전주이씨 종친회 사무실에서 이기형 씨, 조병덕 씨, 이육구 씨를 만나 산신제 전반에 관한 상당히 정확한 제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2차 조사는 8월 9일(음력 7월 1일) 산신제가 드려진 날 산신제의 전 과정을 취재하였고 산신제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몇가지 정보를 더 얻었다.

제보자 : 이기형(68세, 군포시 산본동)

조병덕(68세, 군포시 산본동)

이육구(66세, 군포시 산본동)

당과 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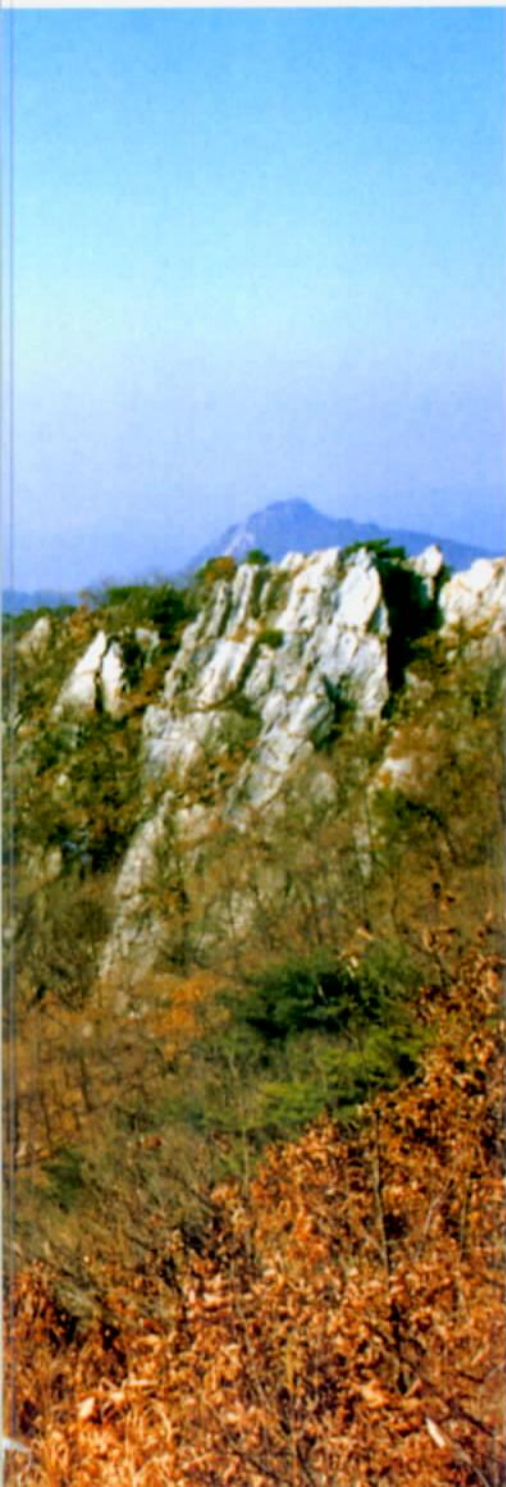
당은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으로 되어 있다. 할아버지당은 수리산 태을봉 아래에 있는 태을초등학교 뒤편으로 난 길을 통해 수리산 입구로 들어가 다시 5분 정도 산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할아버지당은 '수리산산신제당(修理山山神祭堂)'으로 명명한 제각(祭閣)의 형태로 되어 있고 곁에 당 나무 및 바위가 있다. 원래는 지금과 같은 제각의 형태가 아니었고 나무와 바위를 모시는 정도였다가 약 40년 전에 이재준 씨가 기부한 돈으로 제각을 세우고 안에 제단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제각이 세워질 때 단의 좌우에 각각 사기로 된 백마상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

제각(祭閣)과 당 나무 및 바위는 'ㄱ'자 형태의 작은 철책으로 둘러 쌓여 있는데, 철책이 'ㄱ'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제수를 준비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제의가 거행되는 공간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입구의 왼쪽에 소를 삼기 위한 공간이 있다. 그러나 그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현재는 활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철책 밖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할머니당은 바위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당의 동남쪽 5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할아버지당'이 언제부터 제의장소로 정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기부터 서울로 가는 길인 남태령을 넘기 위해서는 이 곳을 지나쳐야 했고, 서울로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곳에 들러 4배(四拜)를 하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오랜 옛날부터 제의가 올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곳이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을 껴안을 수 있는 명당에 해당되며 때문에 당이 위치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당으로 올라가는 수리산 입구



제 일

산신제는 음력 정월과 칠월 초순에 두 번 거행한다. 제사를 모시는 당주를 정한 후, 당주의 생년월일 및 생시(生時)를 『천기대요』나 『천제력』 등의 책자와 대조하여 운수를 따지는데, 천기(天氣)와 생기(生氣)를 각각 확인한다. 두 기운이 맞는 날을 제일(祭日)로 삼는데 제일로 정해진 날 중에도 다시 당주와 천기, 생기가 맞는 시간을 정해 제를 지낸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제일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월과 칠월에 제사를 올린 이유는 이 시기가 농촌으로서는 비교적 한가한 때이자 각각 파종과 추수를 앞둔 시기로서 중요한 농기(農期)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 관

제관은 당주, 축관, 집사로 구성된다. 당주와 축관은 각각 1명이지만 집사는 2명이 선정된다. 과거에는 보통 당주를 먼저 선정하였는데, 주로 아이나 젊은 여자가 없는 집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당주는 제사를 올리기 전에 떡을 마련하여 자기 집 터주신에게 미리 알리는 개인고사를 지냈다. 이 때 마련하는 떡은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주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큰 시루나 가마솥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이 때문에 마을사람 중에서 부유한 사람을 당주로 뽑는 것이 관례였다. 부유한 사람을 당주로 뽑는 데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체면을 차릴 줄 알고 정성 들여 제사를 올릴 줄 알 것이라는 인식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주로 선정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상당히 영예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마을을 위해 봉사했다는 위신이 서기도 하였고, 제를 올린 후에는 제물로 쓴 소의 꼬리나 뼈의 일부가 주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주를 흔쾌히 맡는 사람이 없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보존위원회' 소속의 회원들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해마다 돌아가면서 제관을 맡게 하고, 드문 경우이지만 여자 중에서도 제관을 선정하기도 한다. 당주가 금기시 하는 것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줄었는데, 길을 가다가 죽은 짐승을 보았다거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여전히 금기시하여 이를 고하고 다시 당주를 뽑는 방식을 택한다.

당주는 부정이 없어야 하는데 당주로 선정된 후 제삿날까지 간격이 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을 탈 우려가 있으므로 제삿날 3일 전에 정한다. 당주로 정해진 사람은 부정할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집 밖으로 출타하지 않는다. 또 개발되기 전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금줄을 치고 황토 흙을 당주의 집 대문 앞에 깔거나 대문기둥 옆에 두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당주는 제일 전날에 담을 청소하고 동네에 있는 우물까지 청소했다. 그런 후에 축관과 집사를 정하고 이들과 함께 제사 당일엔 담으로 올라 간다.

축관은 축문을 읽는 역할을 담당하며 집사는 술잔을 받드는 등 당주의 집례를 도와준다. 이들이 제를 올리는 동안에 제관 이외에 제수를 준비하는 사람을 빼고는 담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산 아래에 위치한 노인정에서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대기한다. 특히 여자의 접근을 금하는데, 최근에는 조라술을 걸러야 할 사람이 필요하므로 여자 한 명을 따로 선발하여 같이 동행한다. 할아버지



수리산 산신제당

담에서는 당주, 축관, 집사 모두 4명이 제사를 올리고, 따로 할머니담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을 선정하여 보낸다. 과거에는 할아버지담에서 먼저 제사를 올린 후에 재관들이 할머니담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재관이 더 필요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할아버지담에서 제사를 올리는 시간에 동시에 할머니담에서도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할머니담에서 제사를 올릴 재관을 2-3명 정도 더 뽑는다.

과거에 재관은 별다른 의복을 갖추지 않았고 평소에 착용하는 두루마기를 깨끗이 하여 이를 입고 제를 올리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도포와 갓을 마련하여 쓰고 있다. 도포는 각종 유교제례를 참고하여 비슷한 복장으로 마련하였고 담에서 제를 올리기 직전에 평상복 위에 껴입는다.

제 물

제물은 소머리와 내장·족과 함께 대추·밤·곶감 등 삼색과일 및 시루떡을 쓴다. 이외에도 사과·수박·복어·청포·고사리·도라지·무나물·두부 등을 함께 준비한다. 특히 소를 중시하는데, 소는 한 마리를 통째로 사는 것이 관례이다. 과거에는 제사에 쓸 소를 장만하기 위해 집집마다 돈을 조금씩 내어 충당하였다. 이 때 거둬들이는 돈은 대략 소 값의 절반에 해당되는 액수였다. 소를 잡은 후 가죽과 뼈를 팔아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집이 많았으므로 이마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고 더러는 빚을 내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는 이장들이 협의하여 소 값을 미리 저축을 통해 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당시의 소 한 마리 가격은 좋은 것이 약 30만원 정도였다.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도 소를 굶이 마련한 것은 마을사람들이 제삿날을 '쇠고기 먹는 날'로 생각할 정도로 소 잡는 관습이 굳어져 있었고, 당시는 가난하던 시절이라 1년 중 유일하게 고기를 맛볼 수 있는 날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보존위원회'의 적립금과 회비로 충당하는데 과거와 달리 그리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제삿날 2주일 전에 미리 소를 장만하여 두는데, 과거에는 우시장이 설 즈음에 장으로 직접 나가 흠이 없는 것으로 사왔다. 마을로 돌아올 때에는 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치 '금성대군을 대하듯이' 존대를 하며 '모셔왔다'. 당주 집이나 외양간이 비어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제일까지 소를 먹이는데, 매일 목욕을 시키고 여름에는 서늘한 그늘에서 쉬게 하는 등 정성을 기울인다. 이 때 동네에서 사육비를 거두어 사육농가에 제공하였고, 산에서 흠이나 찌리순 등을 베어와 먹였다. 흠은 특별히 영양분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먹었으며 겨울에는 건초를 먹였다.

원래 제삿날 당일엔 소를 잡았지만 도살한 소를 하룻밤 놓아둔 뒤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생긴 뒤로 금정동에 위치한 도살장에 하루전날 도착하여 소를 잡고 다음날 이를 가져오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정동의 도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양까지 가서 도살을 해오고 있으며, 군포경찰서의 협조로 당일엔 소를 잡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소를 제물로 올릴 때에는 소의 살코기와 족·꼬리 등은 익혀서 올리고 간이나 염통은 생것 그대로 올린다. 이는 예전에 산신령이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었고, 호랑이가 좋아하는 염통이나 간·천엽을 날것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염통은 할아버지담에만 올리고 칼을



조리술 할아리를 덮은 터주거리



조리술 준비

대어 흠집 내는 것을 경계한다. 할머니당에는 할아버지당에서 쓸 제물 중에서 우족 1개, 작은 갈비 등 각 부위를 주먹만한 크기대로 추려내어 올린다.



제물 준비 · 소를 삶는 모습

소 이외에 과일은 삼색과일을 기본으로 올리며, 수박이나 사과를 쓰기도 한다. 수박이나 사과가 없을 때는 자두 등을 올리기도 하지만 배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과일 이외에 고사리, 콩나물, 무나물 등 나물종류 3가지를 준비하고 황태와 두부찜, 시루떡, 조라술을 함께 진설한다. 시루떡은 할아버지당의 경우 2접시를 올리며 할머니당에는 1접시만을 올린다. 조라술은 제사 전날에 당주가 단지째 담아 제단 옆에 묻어두고 그 주위로 새끼줄을 쳐둔다. 조라술은 술밥에 물을 넣어 담그는데 다음날 제를 올릴 즈음에는 익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아무리 추운 날이라고 하더라도 조라술은 반드시 익게 된다고 하며 이를 보더라도 수리산의 산신이 영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조라술을 담글 때 쓰는 물은 산신당의 옆에 흐르는 약수를 이용하였는데 최근에 수리산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터널이 생기면서 물이 끓어졌기 때문에 당주가 집에서 미리 정갈한 물을 써서 담근다고 한다.

제의 순서

제의는 진설, 참신, 초헌, 아헌, 독축, 소지, 발원문 낭독, 고수례의 순서로 행해진다. 제수를 진설할 때는 먼저 조라술 단지를 개봉하여 주전자 2개에 술을 따른 후 하나는 할아버지당에 남겨두고 하나는 할머니당으로 가져간다. 조라술이 묻혀있는 곳 바로 위의 나뭇가지에는 북어를 묶어두고 정갈히 간수한다. 그 다음에 각종 제수를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에 쓸 것대로 나누는데 할머니당으로 가져가는 제수는 소고기 각 부위 중에서 조금씩 떼어내고 과일, 육포 등도 따로 떼어 준비한다. 이 때 흘린 제수는 고수례로 사용하고 다시 주워서 올리지는 않는다. 고기는 할아버지당 바로 앞에서 당주가 직접 삶는다. 과거에는 당집 바로 앞의 소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불을 지핀 후 큰 솥을 이고 와서 고기를 삶았는데 현재는 가스통과 간단한 용구 몇 가지를 들고 와서 고기를 삶는다.

할머니당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할아버지당의 제사절차와 같이 진행된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당의 제사가 끝난 후에 제관들이 다시 할머니당으로 이동하여 제사를 드렸으나 최근에는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드린다. 할아버지당에서 제의를 시작할 때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할머니당'의 제사를 맡은 제관들에게 알려 같이 제사를 시작한다.

제물 진설은 생동숙서(生東熟西)의 원칙으로 진설한다. 제상에 진설된 제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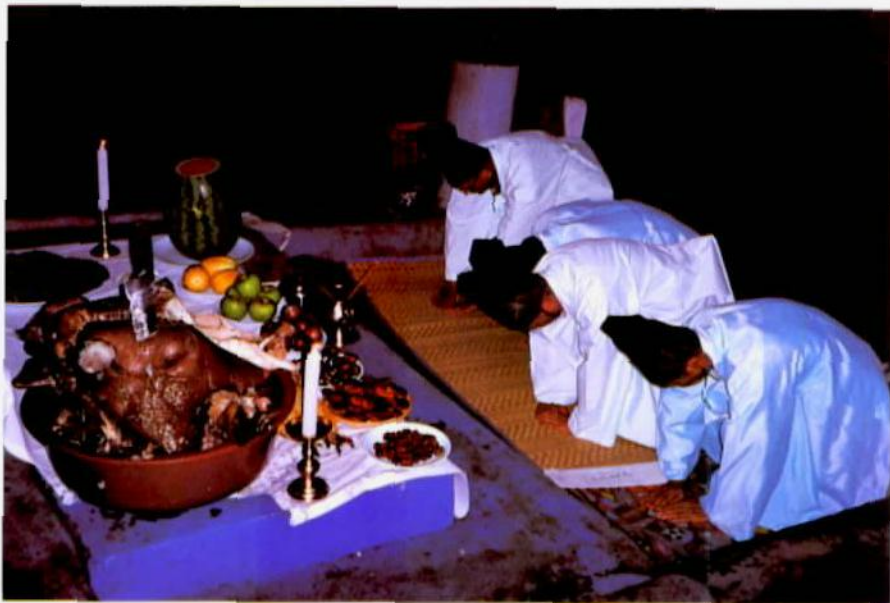


할아버지당의 제상에 진설이 완료되면 제관이 도포 등의 의복을 차려입고 본격적인 제례에 들어간다. 먼저 솥불을 켜고 참신을 한다.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제사상을 차린 후 신을 부르는 형식을 취하는데, 산신제에서는 산신이 이미 당에 자리잡고 있고 여기에 제관들이 찾아가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산신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드린다는 형식으로 참신을 한다. 참신할 때는 모두 4번 절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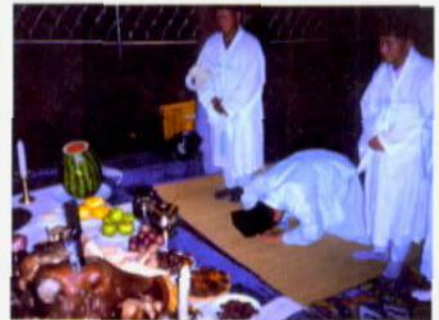
참신이 끝난 후에 잔을 올리는데 잔은 모두 두 번을 올린다. 처음에 올리는 것을 초헌, 두 번째 올리는 것을 아헌이라고 부른다. 초헌은 먼저 집사가 술잔에 술을 세 번 조금씩 따라 채운 다음 땅에 붓는 관주를 한 뒤 다시 술을



초헌



참신. 제관들 4배



초헌 후 헌관이 4배



아헌

따르고 세 번 돌린 뒤 올린다. 이 때 술은 잔에 반만 채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나면 헌관이 4배를 올린다. 이 때 헌관은 술을 처음 올린 집사를 지칭한다. 초헌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잔을 비우고 여기에 술을 가득 따라 올리는 아헌을 시행한다. 그 후에 다시 헌관은 4배를 올리고 이러한 과정이 끝난 후에는 제관 전원이 4배를 올린다.

초헌과 아헌이 끝난 후 독축을 한다. 축관이 축문을 읽어내려 갈 동안에 나머지 제관들은 땅에 엎드린 채 기다리고 있는데, 독축이 끝나면 전원이 일어나 다시 4배를 한다. 축관이 읽는 축문은 예전부터 쓰던 것을 그대로 쓰는데

그 기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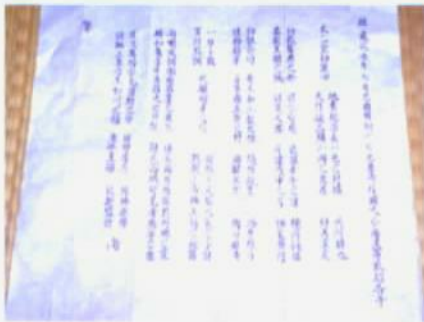
[축문]

太乙堂 祭祀祝文

太乙堂神靈曰 地盡紀維表一邑之封疆 天作峻高鎮二洞之遵居 民所瞻也 神其靈矣 祠載舊典之冊 恭獻至願之誠 禮不可廢 詳莫大吉 歲值甲戌之運 斗建丙寅之月 慄冽衰退 怪氣盛行 詢謨僉同 謹修將事 黃土加三獻之壇 白茅縮五之材 犧牲既豐 酒醴且潔 浴身精白 街口離黃 一日卜辰 百拜致誠 伏願祠事之後 陰佑下民驅六氣之不詳 默朝上帝降五福之餘蔭 雨順風調禾稼菽麥之歲熟 逐疫海外惟在於阿喙之靈 殿民壽域可見者熙皞之樂 澤及萬物不見運動之勞 詩詠三章方至如川之福 用伸炮告 豈非至願 陟降在傍 欽斯監慈 尚冀

땅에는 한 고을 봉하고 하늘에서 높이 2개 동을 천거하니 동민이 보는 바와 같이 신이 영험하도다 사담에 옛 법도로 지극한 정성을 드리니 예법을 다 하면 상서로움이 크도다 해는 갑술년 운이요 달은 병인지월이라 무서움이 겨우 물러가니 괴질이 성행하도다 동민들이 의논하여 삼가 제를 행하며 황토를 퍼 3일을 헌단하고 백모를 묶어서 유두자를 세우고 재물을 종족히 하고 조라를 정결히 하며 목욕재계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입은 굳게 다물 것이며 길일을 택하여 백배 치성드리니 얻되려 원하는 바 정성 드린 후에 음으로 동민을 돕고 상서롭지 못한 괴기를 몰아내시고 삼재례 조회하여 복에 음덕을 내려 주소서 우순풍조하여 오곡이 풍년되고 사시절이 평화로와서 가축이 날로 성취하며 역질은 영험으로 멀리 쫓아내고 무병장수하여 함께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며 덕택으로 만물의 움직임에 수고로움이 보이지 아니하며 학문을 닦으며 복이 냇물 흐르듯 이루게 하소서 정성으로 고하오니 어찌 지극한 발원이 아니오리오 감립하시어 흠향하소서

이어 소지를 하는데 소지는 집사 2명이 한다. 한 명이 한지를 길게 접어주면 다른 한 사람이 이를 건네 받아 불을 붙이는 방식을 택한다. 올해는 재관도 소지에 참여하였다. 한 장이 다 타기 전에 다시 다른 하나를 접어주면 이



축문



축문의 독송

소지



어서 불을 붙여 계속 태우는데, 이렇게 소지문을 태우는 동안에 준비한 발원문을 낭독한다. 발원문은 과거에는 없던 것으로 최근에 마련하였다. 발원문은 축문의 내용이 난해하고 그 기원도 정확하지 않아 '보존위원회' 회원들 사이에서 "축문만 아니라 우리 소원도 빌 수 있는 기원문을 마련하여 빌면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다. 수리산 산신제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드린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원문]

太乙堂 신령님께 정성어린 소지를 올립니다.

하늘에는 天神님네, 땅에는 地神님네, 물에는 龍神님네, 산에는 山神님네, 金神, 土神, 水神, 木神, 여러여러 신령님네 한마음 한뜻 되어 모두모두 도움소서

三日전에 黃土피고 금줄쳐서 부정을 경계하고 음식도 가려먹고 출입도 삼가 一日 卜辰 擇日하여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민이 修理文化藝術祭에 모두 모여 뜻을 모으고 정성모아 이 정성을 드리올제 깨끗하게 목욕하고 一等米로 떡을 하고 場中第一 황소잡고 삼색과일 차려놓고 시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발원하오니 三災八難이며 모든 재앙은 다 물리쳐 주시고 어쨌든 시민들의 바라는 일 모두 성사되게 하옵시고 웃음꽃이 피어날제 노인네는 지혜주고 젊은이는 분발아서 크고 작은 대소사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남녀노소가 어깨춤을 덩실추게 하옵소서. 천년 받들던 할머니당은 개발이란 미명 아래 수년세월 흘렀어도 아늑한데 못 되시고 도로 변에 내몰린 채 대책이 막연하니 우리들의 큰 책임일세 辛巳年인 올해에는 뱀이 지닌 덕목으로 庚辰年에 잃었던 국부와 가산도 되찾는 생산적인 해가 되도록 더 큰 정성드리오니 두루 살피시고 도우셔서 바라는 모든 소망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小禮를 大禮로 받으시고 일장 燒紙라도 일장 燒紙라 마시고 卷燒紙 悞燒紙로 아시고 반갑게도 받으시고 즐겁게도 받으소서

발원문 낭독이 끝나면 사실상 제의가 끝난다. 특이한 것은 제의가 끝났는데도 재물을 거두지 않고 한 단 아래에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다시 돛자리에 진설한 뒤 당의 좌측을 향해 작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는 잡신을 향한 제사인데 일명 '제신제(諸神祭)'라 부르며 수리산신당에 술을 올린 헌관이 다시 헌작을 한 뒤 4배를 하는 형식으로 간단히 지낸다. 이후에 고수례를 행한다. 소를 삶는 일을 맡아본 사람이 재물을 조금씩 떼어서 사방에 던지고 축관도 조라술 술지게미를 조금씩 떼어다가 사방으로 던진다. 최종적으로 축문을 태우는 것으로 모든 제의 순서를 마친다.

제의가 끝나면 제관과 재물 마련을 도우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한다. 조라술도 나누어 마시고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불러서 음식을 나눈 후에 산을 내려간다.



제신제



축문 태우기



음복



제상차림



산신제 제관들 4배

할머니당의 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할아버지 당에 가져갔던 제물 중에 일부를 가져와 제상을 차린다. 올해 할머니당의 제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할머니당의 제관은 이형구 씨(62세), 축관은 이육구 씨(66세), 집사는 김치년 씨(65세)가 맡았다. 5시 10분쯤 할머니당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할아버지당 위치에서 이동하였고 5시 54분에 제사를 시작했다. 먼저 산신제를 지내기 위하여 잔은 올리지 않고 제관들 모두 4번 절을 했다. 이어 제관이 분향을

제관의 분향



제의 비용

‘보존위원회’가 만들어져 회비를 걷고 미리 저금하여 자금을 준비하기 전에는 마을 이장이나 노인들이 의논하여 조금씩 나누어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마을주민들이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는 집의 경우에는 빚을 지고서라도 이를 마련하였다. 대개 소 값이 제사 비용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는데, 소 값은 주민들이 부담한 액수 이외에 부유한 사람에게 빚을 따로 내어 보태었다. 소를 사온 이후에 뼈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빚을 청산하였다. 소 값을 마련하는 데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굳이 빚을 지면서까지 제의에 참가한 것은 “제사드린 자손들은 어디 가서 함부로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도록 산신령이 가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라술 올리기

하고 조라술을 올리고 제관만 4배를 하였다. 이어 다시 조라술을 올리고 국을 올린 뒤 제관만 4배를 하였다. 다음으로 제관이 소지를 하고 축관이 축문을 읽고 이어 발원문을 읽은 뒤에 제관들 모두 4배를 하였다. 그리고 술을 물리고 제관들 모두 4배를 하였다. 이어 고기를 부위별로 자르고 나물과 과일을 담아 고수례를 하였으며, 떡을 따로 떼어 줌으로써 제신례를 하였다. 따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제의가 끝나자 간단히 음복을 하였다.

분육

분육은 과거에 당주집 마당에서 거행하였으나 근래에는 수리산 아래의 경로당에서 행한다. 소는 살코기와 뼈를 함께 나누어주는데, 과거에는 뼈를 부근의 부유한 주민에게 팔아 제사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최근 ‘보존위원회’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서 뼈까지 회원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살코기는 약 1kg씩 104명의 분량을 봉지에 나누어 담고 뼈도 104명분으로 나누어 담는다.

분육은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리 시행한다. 산 아래의 경로당 정자에서 “○○○씨”라고 한 명씩 호명하면 해당 회원이 나와서 고기를 받아간다. 고기가 하나씩 분배될 때마다 분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가고”라고 외치면서 명부에 표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분육이 끝나게 되면 제관들이 제사지낼 준비를 하여 당으로 향한다. 나머지 회원들은 경로당에서 기다리거나 귀가한다.



축관의 축독



분육